

(붙임)

사진 자료



『제주도 동북신곳』 (총 7권)



『제주도 동북신곳』 (총 7권)



(초감제) 곳을 진행하겠다고 고하는 대목이다. 문성남 심방은 간단한 사실을 풀고 연물에 맞추어 천천히 춤을 춘다.



(시왕맞이) 시왕을 청하기에 앞서 신이 있다는 지역의 문을 여는 대목으로 문성남이 연행하였다.



(차사영맞이) 고순안 심방이 저승길을 치우고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차사와 영혼을 위해 다리를 깬 다음 그 길을 돌아보는 모습이다.



(삼시왕맞이) 문성남 심방이 무업의 길을 상징하는 무명천을 박신행으로 하여금 당기게 한다.